진 미 벼

진미벼는 중북부 평야지 및 중산간지와 동해안 중북부지대에 적합한 준조생 양질 내냉성 품종으로 냉조풍에 견딜성이 강하고 저온발아성 및 내냉성이 양호하며 숙기가 조생과 중생의 중간으로 냉해위점을 분산시키면서 지역간 출수기가 안정적인 품종이다.

1. 육성경위

1989년 작물시험장 수도육종 연구진에 의해 육성된 품종이다. 양질 내냉 다수성인 아나바와세와 내병양질 다수성인 SR4084-5-4-6를 1980년 하계에 인공교배하여 계통육종법에 따라 육성하였으며 내냉성, 내병충성, 미질 등 특성검정을 거쳐 우수한 개체를 선발, 세대를 진전시킨후 생산력검정시험, 지역적응시험 등에서 그 우수성이 인정되어 1990년 1월에 장려품종으로 결정되고 보급하게 되었다.

2. 주요특성

가. 고유특성

저온발아성이 양호함.
내냉성은 유묘기와 출수지연 및 임실장해 등에 모두 강함.
수발아가 잘 안되는 편임.
지역간 안정된 출수기를 보이며 70일묘를 만식하였을 때도 불시출수현상이 일어나지 않음.

진미벼는 저온발 아성이 양호하고 내냉성이 강하고 냉조풍지대에 적응하며 냉해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으며 출수기도 안정적인 품종이다.

나. 일반생육 특성 및 수량특성

출수기는 중북부 평야지와 중산간지에서 8월5일과 6일로서 오대벼보다 1주일 정도 늦은 준조생종임.
간장은 74cm로 오대벼와 유사한 준단간으로 비교적 쓰러짐 견딜성이 강함.

수장은 19cm로 오대벼와 비슷하나 이삭의 착립밀도가 오대벼보다 약간 조밀한 편이고 까락이없으며 탈립이 잘 안되며 숙색이 좋은 편임.
오대벼보다 주당 이삭수는 적으나 수당영화수가 현저히 많으며 등숙이 양호하고 현미천립중은 20.4g으로 오대벼보다 작은 중소립종이고 정현비율은 81%로 오대벼와 비슷한 수준임.

진미벼 일반생육 및 수량특성 (`87~'89, 지적)

품 종 명	출수기 (월.일)	간장 (cm)	수장 (cm)	주당수수 (개)	현미천립중 (g)	등숙율 (%)	정현비율 (%)
진 미 벼	8. 4	74	19	15	20.4	83.9	81.1
오 대 벼	7.28	72	19	18	23.1	78.4	80.9

다. 병충해, 생리장해 저항성 및 미질관련 특성

도열병, 백엽고병 바이러스 검정에서 보두 약한 반응을 보임.
저온발아성이 양호하고 내냉성이 강하고 수발아가 잘 안됨.
오대벼보다 쌀알이 맑고 투명하며 호화온도가 낮고 아밀로스함량이 19%정도이며 밥이 윤기와 찰기가 있어 추청벼보다 우수함.

라. 수량성

생산력검정시험에서 진미벼는 보통기 보비 및 다비재배의 평균 쌀수량이 486kg/10a 568kg/10a로 오대벼에 비해 각각 3% 및 6%의 증수를 보였다.
지역적응시험결과 보통기 보비재배의 평균 쌀수량이 중산간지에서는 476kg/10a로 오대벼와 대등한 수량을 보였으나 중북부평야지에서는 544kg/10a로 상풍벼보다 9%정도 증수되었으며 중산간지의 다비재배에서는 평균쌀수량이 534kg/10a로 오대벼와 비슷한 수량성을 나타내었다.
농가실증시험에서는 오대벼에 비해 출수는 10일 정도 늦고 키가 2~14cm가량 컷으며 수당립수가 약간 많았고 쌀수량은 평균 473kg/10a로 2개지역 모두 약간씩 증수되는 경향이었다.

쌀수량성 (kg/10a)

품종명	생 산 력 검 정			지 역 적 응 시 험			
	'85	'86	평균	'87	'88	'89	평균
진미벼	499	472	486	450	494	538	486
오대벼	512	433	473	467	594	526	486

3. 적응지역 및 재배상의 유의점

진미벼는 중북부 평야지 및 중간지와 동해안 중북부 냉조풍지대에 적응하는 품종으로 준조생, 양질, 내냉 다수성 품종이다. 그러나 병충해에 강한 편이 못되므로 적기방제에 힘써야 하며 질소비료적용시에는 도복과 미질저하의 우려가 있으므로 적정균형시비에 수발아가 되

지 않도록 적기에 수확하여야 한다.

문의사항이 있으면 저에게 연락 바랍니다.
양 창인
농촌진흥청 작물시험장 수도육종과
(441-100)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209
0331-290-6818(FAX: 0331-292-4560)